

# 오지에서 보내는 여름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언택트 여행' 바람이 불면서, 사람과 접촉할 필요 없는 여행지가 인기다. 그런 의미에서 인적없는 곳을 다니는 오지 여행도 주목을 받고 있다. 작은 불편함을 감수하면 최적의 여행을 즐길 수 있다.

글·사진 성연재 기자





## 해발 1천m에서 즐기는 차박

올해 차박(車泊)을 비롯한 아웃도어 열풍이 거세다. 그러나 자칫 장소를 잘못 고르면 차박은 잠 못 이루는 '열대야박(熱帶夜泊)'이 될 수도 있다. 해발 1천m가 넘는 고원지대라면 이런 걱정은 사라진다. 고원지대는 차박 뿐 아니라 여름 여행지로도 최적이다.



### 해발 1천100m 강릉 안반데기

이 여름을 가장 시원하게 보낼 수 있는 곳은 어디일까? 푸른 바다 넘실거리는 동해? 얼음장처럼 시원한 물이 쏟아지는 계곡? 울여름 여행의 가장 뜨거운 이슈는 아마도 차박이 아닐까. 바다와 계곡을 모두 버리고 고원으로 향했다. 해발고도가 낮을 경우, 차 내부는 찜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며칠을 고심하다 정한 곳은 강원도의 고원들이었다. 해발 1천100m의 고지대인 강원도 강릉시 왕산면의 안반데기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고랭지 채소 재배지다. 이곳은 한여름에도 서늘한 기온을 만끽할 수 있어 최근 몇 년 사이 '차박 성지'로 떠올랐다. 주변에 불빛이 없어 별을 관측하기 위해 밤중에 올라오는 사람들도 많다.

안반데기를 오르는 길은 가파르고 꼬불거렸다. 올라가는 길에 정상 아래쪽 카페 앞 공터에서 차박을 한 60대 남성을 만났다. 승합차에서 잠을 잤더니 쌀쌀했다고 한다. 가장 위쪽에 있는 멩에 전망대 인근 주차장은 한때 차박 성지로 알려졌으나 쓰레기 문제 등으로 강릉시에서 차박을 하지 못하도록 계도해 이곳에서 잠을 잤다는 것이다. 안반데기에서의 차박은 그래서 포기하기로 하고 서늘한 공기만을 만끽하는 데 만족하기로 했다. 멩에 전망대 인근의 주차장에 올라가니 운해가 이쪽저쪽으로 흐른다. 저 멀리 한쪽에서 꼬물거리는 것을 보니 배추 심는 사람들이다. 방해하지 않도록 잠시 지켜보다 산을 내려가 태백으로 향했다. 태백은 해발 700m에 자리 잡은 도시다.

**해발 1천268m 두문동재와 850m 삼탄아트마인**

태백산 아래쪽은 태백시와 정선군이 자리 잡고 있다. 태백산국립공원은 면적 7만km로, 강원도 태백시(면적의 73.0%)·영월군(0.1%)·정선군(1.3%)과 경북 봉화군(25.6%)을 아우르고 있다. 태백산을 오르내리는 데 가장 좋은 곳은 태백시와 정선군 두 곳이다.

우선 정선군 고한읍에 있는 삼탄아트마인을 들렀다. 삼탄 아트마인은 예전에 석탄을 캐내던 광산이 있던 곳이다. 그곳이 이제는 예술을 캐내는 문화예술 공간으로 환골탈태했다. 아트마인이 자리 잡고 있던 곳이 석탄 갱도가 시작하는 부분이라 해발 850m 고지다. 갱도 위의 '아빠, 오늘도 무사히'란 문구가 가슴에 와 박힌다. 그 문

구가 박힌 곳이 '수평갱 850'이다. 운무가 삼탄아트마인 주변을 휘감았다. 고지에서 맛보는 서늘함이 좋았다. 내부에는 150여개국에서 수집한 10만여점의 예술작품이 전시돼 있다. 삼탄아트마인에서 나와 태백산 쪽으로 더 올라가면 태백시와 정선군 고한읍의 경계에 있는 해발 1천268m의 고개 두문동재다. 두문동재에서는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차에서 내리니 냉장고에서 한기가 쏟아지듯 이쪽저쪽으로 운무가 춤을 춘다. 하얀 물입자가 보일 지경이다. 마치 옛 드라마 '전설의 고향'에나 나온 듯한 장면이다. 상쾌한 냉기를 즐기며 태백 쪽으로 향하면 해발 1천180m 지점인 태백시 화전동 기슭에 너덜샘이 보인다. '돌이 많은 지대'라는 뜻의 '너덜' 가운데 있는 샘이다. 너덜샘은 태백시가 2003년 샘터공원으로 조성한 덕분에 화장실 등 편의시설도 갖추고 있다. 폭자는 1천300리 낙동강의 발원지가 황지연못이 아니라, 이곳 너덜샘이라는 주장을 제기하기도 했다. 너덜샘은 갈수기인 한겨울에도 물이 마르지 않을 정도로 풍부한 수량을 자랑한다. 특히 손이 시릴 정도로 차가워 지역 주민들로부터 '자연 냉장고'로 불린다.



1 '아빠, 오늘도 무사히'란 문구가 보이는 '수평갱 850' 2 정선 삼탄아트마인에 운무가 낀 모습 3 채탄 작업장으로 통하던 통로



1



2



3



**해발 1천180m 국내 최고(最高) 캠핑장 너덜샘야영장**

덕분에 이곳은 여름철 지역 주민에게만 알려진 최고의 여름 캠핑장이 됐다. 해발 1천180m로 국내에서 가장 높은(最高) 캠핑장이기도 하다. 인기의 가장 큰 이유도 그래서 시원한 날씨다. 여기에 태백 시내에서 가까운 데다 차량으로 바로 올라와 캠핑할 수 있다는 편리성, 풍부한 식수도 한 몫한다. 옆자리에 주차한 승합차 주인은 온 지 20일째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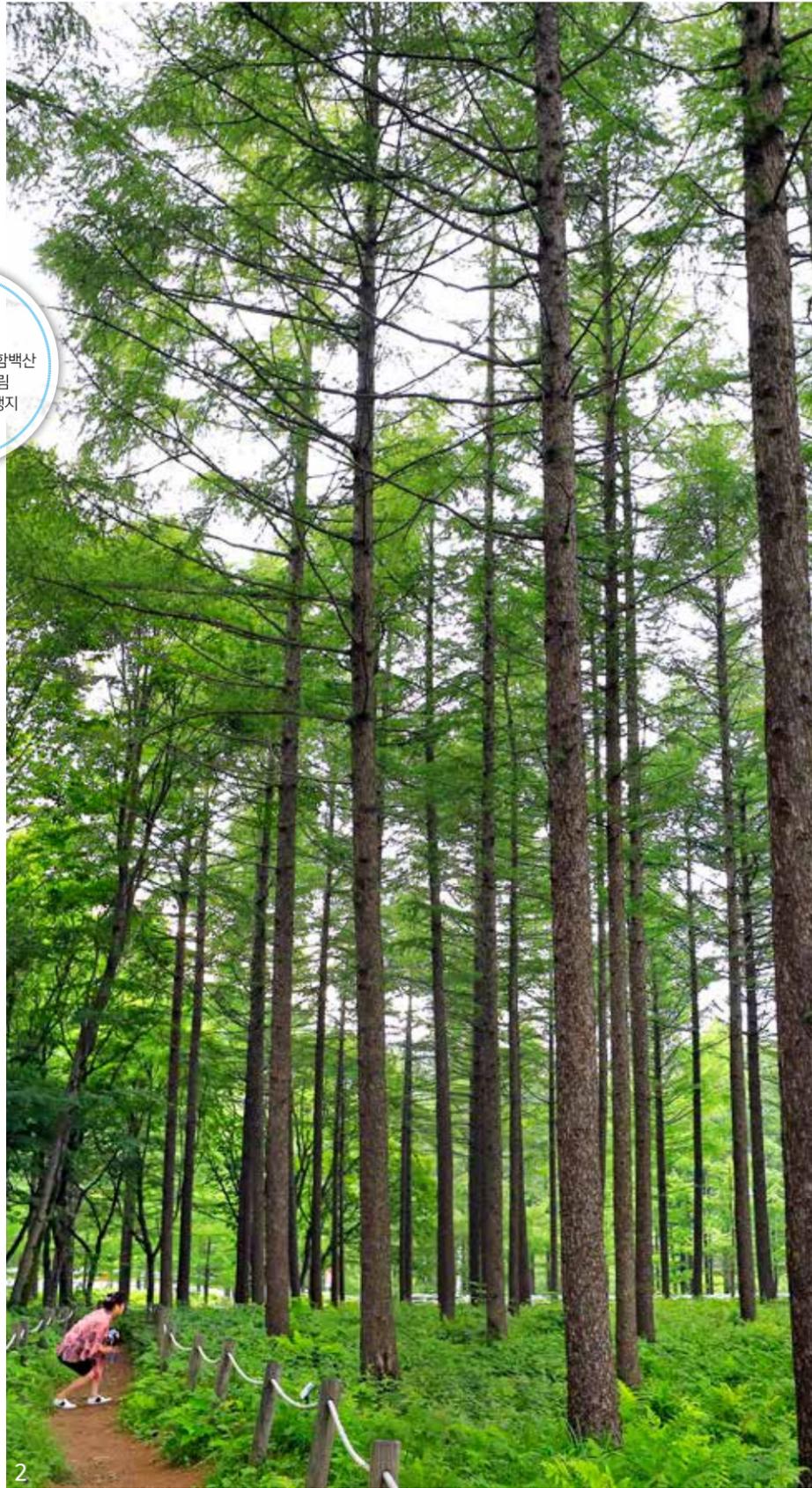
물이 팔팔 흐르는 너덜샘 바로 앞쪽에 자리를 잡았다. 사실 자리를 잡았다는 표현을 쓸 것까지도 없다. 차를 대면 그만이다. 우선 2열을 접어 바닥을 평평하게 한 뒤 매트 깔고 침낭을 폈다. 텐트를 펴는 캠핑에 비해 여러 과정이 생략돼 편리했다. 트렁크를 열고 테이블과 의자를 내렸다. 그리고 불을 사용하지 않는 이른바 '비화식' 식사를 했다. 야영장이긴 하지만, 태백산 국립공원 내부라 심적인 부담이 있었기 때문이다.

간단히 식사하고 트렁크 문을 열고 하늘을 봤더니 별이 쏟아졌다. 삼각대를 들고 이쪽저쪽을 찍다 보니 자정이 넘어간다. 차 안으로 몸을 밀어 넣었다. 높은 고도에서의 캠핑이라 동계용 오리털 침낭을 준비했다. 조금 열어놓은 유리창 사이로 쌀쌀한 공기가 밀려들었다. 차량용 모기장을 준비했지만 사용하지 않았다. 높은 고도라 모기가 없었다. 기분 좋은 쌀쌀함을 느끼며 잠에 빠져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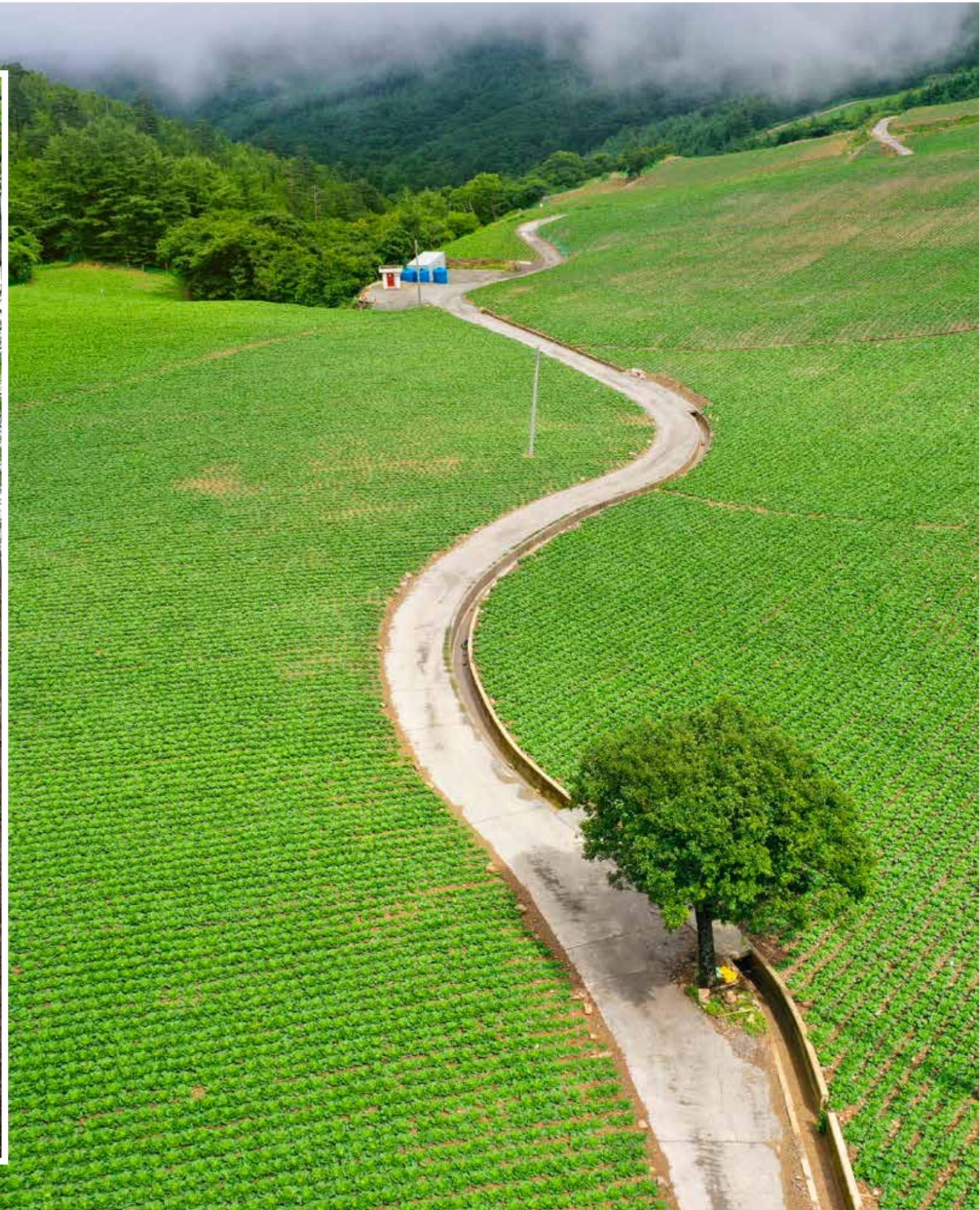


1

- 1 태백의 명물 물닭갈비
- 2 해발 1,260m의 함백산 소공원의 침엽수림
- 3 매봉산의 고랭지 배추밭



2



3

**해발 1천300m, 바람과 구름의 매봉산**

내친김에 태백시 창죽동 소재 매봉산 바람의 언덕도 올라가기로 했다. 1천300m 높이의 매봉산 바람의 언덕은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사시사철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다. 한때는 차박을 하는 사람들이 간간히 올라가기는 했지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시원함을 잠시 즐기려는 사람들만이 찾고 있다.

공교롭게도 비가 내려 운무가 가득 차는 바람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길도 좁고 미끄러워 시내로 일단 철수한 뒤 태백의 명물 '물닭갈비'를 맛보기로 했다. 시내 한 물닭갈비 전문점 골목길에 차를 댄 뒤 음식을 먹던 중 쿵 하는 소리가 나 골목길을 내다봤다. 누군가가 후진하다 내 차를 받은 것이다. 되는 것이 하나도 없는 날이다. 힘들게 올라간 매봉산은 시계 제로였고, 접촉 사고로 밥도 못 먹고 다시 나왔다.

보험회사를 부르고 사고 처리를 하는 동안 구름이 살짝 걷힌다. 잠시 고민하다 다시 매봉산으로 향했다. 날이 갠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꼬불거리는 길을 올라 해발 1천300m까지 다시 올라갔는데 잠시 해가 뜨는 게 싫더니 다시 운해가 자리를 잡는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발길을 돌렸다. 서늘한 공기를 만난 것에 만족해야 했던 날이다.



1

1 임도에서 만난 전직 가수 '머루와 다래'  
2 차박을 위해 개조한 승합차 내부  
3 차박에 사용된 RV 내부

**해발 1천330m 함백산에서 만난 '진포배기'**

태백산에서의 기분 좋은 차박을 끝내고 이번에는 정선군 고한읍의 함백산 쪽으로 향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도로는 지방도 414호선의 함백산 만항재 구간으로, 해발 1천330m다. 만항재 쪽에서 운탄고도 쪽으로 난 임도를 5분가량 가면 풍력발전소가 보인다. 그 아래쪽에 작은 공터가 있는데 차량 몇 대가 차박을 하고 있다. 개조된 승합차가 눈에 띄어 인사를 했다. 중년 부부는 자신을 왕년에 가수로 활동한 '머루와 다래'라고 말한다. 최근 '미스터 트롯트'에서 리바이벌돼 인기를 끌고 있는 노래 '진포배기'의 원곡자다. 진포배기 외에 '심봤다' 등의 히트곡을 갖고 있다. 그들은 강원도 정선에 자리를 잡고 '108 산사 순례의 길' 등 불교 행사를 통해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은 자주 이곳에 올라와 차박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긴다고 했다. 400만원을 들여 서울에서 차량도 개조했다. 올해 초부터 차량 구조변경 절차가 간단해졌기 때문이다. 평탄화를 통해 잠을 잘 수 있도록 했고, 아래쪽은 수납공간을 만들었다. 공연하러 다닐 때를 대비해 침실 공간과 트렁크 공간을 분리할 수 있도록 가림막도 설치했다. 최근 코로나19로 공연이 뜸해져 이렇게 차박을 열심히 다니고 있다고 한다.



2



3



4



5

4 차박을 위해 비화식으로 준비한 수육  
5 차박을 위해 바닥을 평탄화하는 모습  
6 승합차용 모기장  
7 차박용 선루프 모기장



6



7

**차박 준비물과 주의점**

차박은 말 그대로 차 내부의 공간을 활용해 숙박하는 것으로, 짧은 여행 시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차를 세운 뒤, 차 내부에서 자며 여행하는 것을 말한다. 원래 차박은 캠핑이나 낚시의 보조적인 역할을 하던 숙박 방법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사태 이후 차박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차박을 위해서는 우선 '평탄화'가 필요하다. 바닥이 평평해야 잠을 잘 수 있기 때문이다. 2열을 접으면 트렁크와 같은 높이가 되는 차량을 소유한 경우 평탄화에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국산 차량의 경우 쉐보레의 올란도나 한국지엠의 윈스톰 맥스, 기아의 쏘렌토 등이 가장 평탄화하기 쉬운 차량으로 알려졌다. 수입차의 경우 랜드로버, 지프의 그랜드체로키나 랭글러 등이 편리하다. 이외의 차량은 직접 짜 맞추거나, 전문 업체에 평탄화 침상을 주문하면 된다. 단돈 몇만원에서 100만원대까지 가격대가 형성돼 있다. 고가의 제품은 아래쪽에 수납공간을 둘 수 있다. 기타 필요한 제품으로는 캠핑용 매트와 침낭 등이 있다. 여름철 차박 캠핑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차량용 모기장이다. 차창에 뒤집어씌운 채 문을 닫으면 모기장이 형성되는 형태로, 최근 차박 캠핑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선루프가 있는 차량용 모기장과 트렁크에 장착하는 모기장도 판매되고 있다. 초심자들이 놓치기 쉬운 것이 타프(그늘막)다. 한여름의 경우 고원지대를 제외하고는 차량 내부에서 생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차박 타프는 블랙펄 코팅이 된 제품을 찾는 것이 좋다. 일반 타프와 비교하면 차광효과에서 큰 차이가 난다. 차박 인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쓰레기, 주차 등의 문제로 주민과 마찰이 빚어지는 경우도 많다.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오고, 주차장에서 취사 가능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마트에서 장을 볼 때는 대형 마트보다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하는 시장을 이용하는 것을 권한다.

# 낙동강변에 숨겨진 마을들

경북 북부에는 현지인들도 잘 모르는 청정한 오지 마을이 의외로 많다. 경북 봉화의 오지 마을로 통하는 길은 낙동강 옆으로 난 트레킹 코스뿐. 요즘처럼 비가 자주 오면 길이 잠기고 완전 고립 상태가 된다. 이곳에서 채취하는 투종 벌꿀과 산나물은 청정한 자연의 결정체다.





2

**각금**

각금은 경북 봉화군 소천면 분천리의 승부마을과 양원마을 사이에 있는 작은 마을이다. 낙동정맥트레일 구간 한가운데 있는 이 마을은 출입구가 수풀에 가려져 있어 외지인은 물론, 현지인들도 모르는 사람이 많다. 들머리는 승부마을이나 양원마을이다. 양쪽에서도보로 낙동강 길을 걸어 2km 남짓 걸어가면 낙동강 절벽 위에 설치된 데크 길을 만나게 된다. 낙동강변에서도 아름답기로 손꼽히는 길이다.

이 데크길을 걷다 보면 한가운데 작은 현수교가 나타난다. 현수교 기둥에는 작은 글씨로 '覺今'(각금)이라고 쓰여 있다. 마법의 세계로 가는 비밀스러운 표식처럼 느껴진다. 이곳에서 현수교 난간을 타고 넘어 내려간 뒤 지형을 잘 살피면 오솔길이 나온다. 마치 비밀의 문을 두드리는 것 같다. 이끼 가득한 작은 시냇가를 건너 역시 간신히 사람 한 명이 지날 수 있는 오솔길을 걸어 올라가면 작은 외딴집이 나온다. 그 집을 지나쳐 이제는 수풀이 한참 자란 길을 10분 정도 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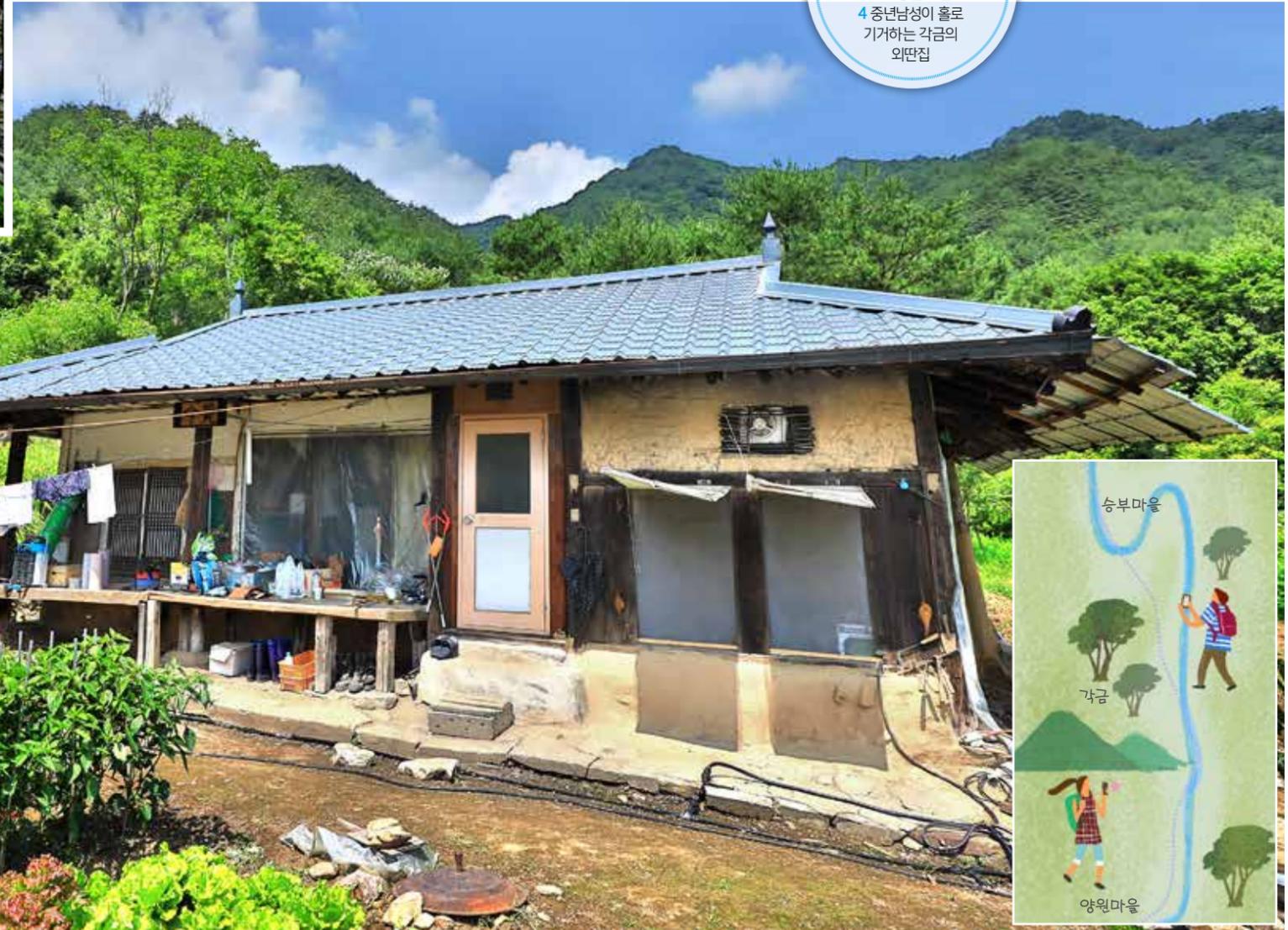
- 1 각금으로 통하는 트레킹 코스
- 2 현수교 옆에 누군가 작게 쓴 각금 지명
- 3 울창한 나무에 둘러싸인 외딴집



3



1 각금으로 통하는  
이끼길 2 수십 년 된 경월  
소주병 3 외딴집에 설치된  
작은 태양열 집열판  
4 중년남성이 홀로  
거거하는 각금의  
외딴집



가면 또 다른 집 하나가 보인다. 집 앞에서 한참을 기다렸으나 인적이 없다. 다시 처음 마주친 집으로 내려갔다. “계세요?”라고 몇 번 우렁차게 외치니 중년 남성 한 명이 집 앞 비닐하우스에서 나온다. 울봄 이곳에 내려와 살기 시작했다는 김모 씨다. 그는 가족과 떨어진 채 ‘자연인’처럼 살고 있다고 한다. 사진을 찍어도 되느냐고 물었더니 손사래를 쳤다. 조용히 살고 싶다고 한다. 마루에 걸터앉아 그가 내주는 매실 음료를 마셨다. 마루 위에 7kg짜리 고양이 사료가 눈에 띄었다. 사료를 지고 왔느냐고 물었더니 그렇단다. 원래 야생고양이였는데, 먹이를 주다 보니 홀로 사는 그의 친구가 됐다고 한다. 그 먼 거리를 걸어 나가 사료를 지고 왔다는 것은 그만큼 그의 삶에서 고양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이 아닐까. 장이라도 한번 불라치면 족히 2시간을 걸어야 하는데 말이다. 톰 행크스가 주연한 영화 ‘캐스트 어웨이’에서 주인공이 물에 떠내려온 배구공에 말을 거는 장면이 떠올랐다. 원래 각금에는 13세대가 살았다. 그러나 1980년대 교통 불편 등으로 모두 떠나가면서 이곳은 버려진 마을이 됐다. 수십 년이 흐르고, 최근야 김씨를 비롯한 몇 명이 다시 이곳에 들어와 거주하면서 개간을 시작했다. 김씨 집 처마 아래에는 ‘覺승’이라고 손으로 깎은 나무 현판이 보인다. 마을 이름대로 이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일까. 이곳을 찾은 나에게 던지는 물음이다.

## 농무이

지난 2013년 스위스관광청은 소천면 분천리의 낙동정맥 트레일 한 구간에 '체르마트길'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체르마트길은 백두대간 협곡열차가 가끔 정차하는 비동 승차장 바로 앞에서 시작해 양원마을 앞까지 약 2.2km 구간이다. 이곳은 스위스의 마터호른으로 향하는 관문인 체르마트처럼 자동차가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열차로만 여행이 가능한 곳이다. 당시 스위스관광청은 이곳이 전기차를 제외한 일반 차량이 가지 못할 정도로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체르마트와 닮은 꼴이라 해서 체르마트 길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이 지역을 위성지도에서 보면 젓소의 늘어진 젓 모양과 비슷하다. 젓소의 배 부위를 스쳐 지나가는 곳이 체르마트 길이라면, 아래쪽 젓 모양은 숨겨져 있는 농무이 지역이다.

대부분의 트레커들이 체르마트 길만 지나가기에 농무이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한다. 언제나 비밀의 문은 남들이 다들 알고 있는 흔한 길목 한쪽 구석에 숨어있다. 농무이로 향하는 길도 마찬가지로. 체르마트길 초입에서 옆으로 난 작은 오솔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가면 드넓은 공간에 흙과 나무로 지은 집이 나타난다. 윗동네인 양원마을의 윤재원 씨가 토종 벌꿀을 관리하기 위해 지은 집이다. 이곳을 지나 5분가량 내려가면 20m 높이의 절벽과 함께 낙동강이 파노라마처럼 한눈에 펼쳐진다.

윤씨는 낙동강이 내려다보이는 절벽 위에 잠시 서는 게 싫더니 다람쥐처럼 절벽을 타고 내려가 절벽에 매달렸다. 토종 벌꿀의 생존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다. 올해는 낭충봉아부패병이 전국에 급속도로 퍼져 토종벌 농가가 큰 피해를 봤다. 한번 퍼지면 그 확산속도가 매우 빠르고 예방과 치료가 안 돼 피해가 극심하다.



- 1 토종벌이 지은 벌집에 꿀이 가득 차 있다.
- 2 승용차가 낙동강물이 넘쳐 흐르는 쿿구멍 다리 위를 아슬아슬 건너고 있다.
- 3 오지마을에 핀 산수국
- 4 벌통을 살펴보는 윤씨



윤씨를 따라 어렵게 절벽 길을 따라 내려갔다. 카메라를 매고 내려가려니 여간 몸이 뻘뻘한 게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 저기 아래 절벽 아래로 떨어질 것 같다. 이마와 손에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나뭇가지 하나를 왼손으로 잡고 서서 윤씨가 벌통 뚜껑을 따는 모습을 지켜봤다. 윤씨의 얼굴이 환해졌다. 이곳 절벽 아래 설치된 토종벌통에는 병이 퍼지지 않았다. 그가 벌집 채 건네주는 꿀을 받아먹었다. 벌집은 벌들이 천연 꿀을 이용해 만든 밀랍으로, 먹어도 안전하다. 입에 넣고 씹었더니 밀랍이 부서지며 안에 가득 찬 벌꿀이 입안으로 흘러내렸다. 토종 벌꿀 특유의 고소한 맛이 입안 가득 퍼졌다. 그는 이런 식으로 이 일대뿐만 아니라 전국의 명산 절벽마다 벌통을 매달아 놓고 토종벌꿀을 생산한다. 절벽에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 손을 타지 않는다고 한다. 한번 그와 함께 벌꿀을 따는 현장을 방문한 사람은 단골이 된다. 그는 올해 꿀 생산이 많지 않아 수요를 충족시켜주지 못해 안타깝다고 말했다. 농무이 마을에는 현재 사람이 살지 않는다. 윤씨는 “벌꿀 관리를 위해 지은 이 집에 몸이 불편한 사람들이 와서 살겠다고 하면 가끔 내주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양원마을**

인근 영양군 수비면 수하리가 빛 공해가 없이 밤하늘을 볼 수 있다고 해서 '국제밤하늘보호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이곳도 영양군에 뒤지지 않을 만큼 어둡다. 별 관측에는 이 마을 한쪽에 자리 잡은 라벤더 농장이 최적지다. 탁 트인 라벤더밭을 배경으로 별을 관찰하다 보면 라벤더 향기와 쏟아지는 별이 기막힌 조화를 이룬다. 한여름이라도 쌀쌀하니 긴 팔 차림을 권한다.  
하루에 3번씩 무궁화 상·하행선이 오가는데, 이곳에서 정동진까지 2시간이 걸린다. 여름 휴가로 경북 내륙 오지와 동해안을 모두 둘러볼 수 있는 코스다. 양원마을 닥동강변 절벽 위에 세워진 정자에서 바라보는 풍광은 비교할 수 없는 곳이 없다.

라벤더 향기와 함께 별을 바라볼 수 있는 라벤더 농장



- 1 염소를 치는 윤씨
- 2, 3 화전민 밥상과 도시락 세트
- 4 운무가 낀 배비워산

농무이와 각금의 들머리가 되는 오지 마을이 양원마을이다. 예전에는 기차길이 마을을 관통했지만, 기차역이 없었다. 그 때문에 주민들은 6.5km 떨어진 분천역이나 5.6km 떨어진 승부역까지 가서 기차를 타고 봉화 춘양장을 본 뒤 돌아오곤 했다. 춘양장에서 돌아올 때는 아래쪽인 분천에서 내리지 않고 마을 위쪽인 승부까지 가는 기차표를 끊었다. 보따리를 차창을 열고 던지기 위해서다. 그리고 5.6km를 걸어와 물건을 가져갔다. 보따리를 가지러 철길을 건다가 기차에 치여 목숨을 잃은 주민이 한두명이 아니었다.

1988년 주민들은 마을에 기차가 서게 해 달라는 간절한 손편지를 청와대에 보냈다. 비둘비둘, 손으로 쓴 순박한 상소문에 청와대가 반응했다. 철도청으로부터 역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통보가 왔다. 그래서 주민들이 합심해서 손수 건설한 코딱지만 한 역사는 국내서 '가장 작은 민자역사'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이 마을에는 지금도 10여가구가 산다.

농무이에서 양원으로 돌아오는 길에 낙동강의 물이 쿡구멍 다리 위로 넘쳐 거세게 흘러갔다. 며칠 전 비가 왔기 때문이다. 아슬아슬한 장면이 펼쳐졌다. 윤씨의 승용차가 넘치는 물을 헤치며 나아갔다. 아무리 얇게 보여도, 낙동강 강물이다. 조금만 더 깊었다면...하는 불안감이 엄습했다. 윤씨는 며칠



전에는 이것보다 더 깊었다면서 웃는다. 윤씨는 염소 방목을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약초와 흑염소로 진액을 만들어 미리 주문한 도회지 사람들에게 판다.

이 마을에서는 지역 주민들이 산에서 직접 채취한 산나물 장아찌 도시락을 맛볼 수 있다. 주민들은 근처 산골짜마다 자신만 아는 산나물 군락지가 따로 있다. 그 위치를 이웃에게는 말해주지 않지만, 외지인들에게 주는 밥 인심만큼은 푸근하다. 방순자 씨 집에서는 10명 이상의 단체가 미리 주문하면 산나물 위주의 화전민 도시락 식사를 할 수 있다. 방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외지인들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차림에서 도시락으로 판매 방식을 바꿨다. 이 도시락에서는 어느 도시락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었던 산나물 장아찌 등 진짜 화전민들이 먹던 음식들을 맛볼 수 있다. 오가피순 장아찌와 두릅 장아찌, 땅두릅 장아찌는 물론 참외 장아찌도 제공된다. 특히 바로바로 담근 김치가 신선하다.

# 서늘한 동굴에서 즐기는 탐험



동강은 강원도 평창, 영월, 정선의 경계를 넘나든다. 평창군 미탄면의 동강 절벽 15m 위에는 배로만 접근이 가능한 백룡동굴이 있다. 국내 유일의 탐험형 동굴인 이곳에 가면 낮은 포복은 기본이다. 그러나 유격 훈련을 방불케 하는 액티비티에도 전혀 겁지 않다. 이곳의 평균 기온은 섭씨 13도다.



### 문화마을과 백룡동굴

백룡동굴은 들머리부터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 충분했다.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를 관통하는 평창동강로는 동강을 만나면서 끝이 난다. 길이 끝나는 곳에 형성된 문화마을은 대표적인 오지마을로 손꼽혔다. 몇 년 전 포장이 되긴 했지만, 길이 끊기는 곳에 자리 잡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고립감은 여전하다. 문화마을에는 백룡동굴을 탐방하는 데 관문인 백룡동굴 탐방센터가 있다. 이곳에서 빨간색 탐사복으로 갈아입은 뒤 안전모를 쓰고 장화도 신었다. 동굴 내부에 물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진흙이 묻을 수 있으므로 아웃도어용 드라이 백(방수 가방)을 챙겼다. 카메라를 넣고 다니다 취재해야 할 일이 있으면 꺼내 쓰기 위해서였다.

오늘 동굴 탐험을 할 인원은 60대 부부 등 모두 5명으로, 평창군 소속 최재훈 주무관도 동행했다. 동굴해설사로부터 간단한 주의사항을 들은 뒤 강으로 향했다. 선착장에는 백룡동굴로 향하는 나룻배가 기다리고 있다. 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노라면 왼편에 마치 옛 홍콩 영화 '동방불패'에서 본 듯한 깎아지른 절벽이 나타난다. 절벽을 가로지르는 데크 로드가 위태롭게 서 있지만, 잦은 낙석 탓에 폐쇄된 지 오래다. 그래서 더욱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낌이 들었다. 현재 동굴로 난 길은 오로지 이 뱃길밖에 없다. 도착해 숨을 헐떡거리며 올라가니 동굴 입구다.

동굴은 1976년 주민들에 의해 동굴의 깊숙한 부분이 더 발견되면서 존재 사실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뤄졌고, 1979년 천



- 1 백룡동굴로 향하는 곳에 있던 옛 굴. 몇 년 전 새 도로가 뚫리면서 사용할 길이 없어졌지만, 과거엔 이 굴을 통과해야만 어름치마을과 백룡동굴로 갈 수 있었다.
- 2 카메라를 보호하기 위해 준비한 드라이백



- 1 백룡동굴로 통하는 절벽 위 통로
- 2 백룡동굴로 가는 나룻배
- 3 나룻배에서 내린 뒤 산에 올라가야 백룡동굴을 만날 수 있다.

연기념물 260호로 지정됐다. 일반에 개방된 것은 2010년이지만 하루 240명가량만 탐방할 수 있다. 동굴의 전체 길이는 약 1.87km가량으로, 크게 A~D굴 등 4개 루트로 나뉘어 있지만, 탐방은 주로 A굴 쪽에서 이뤄진다. 탐험 시간은 1시간 40분 안팎이라고 했다.

**동굴 탐험**

입구부터 찬바람이 흘러나왔다. 헤드 랜턴을 켜 뒤 내부로 들어서니 동굴로 들어간다는 실감이 난다. 가이드가 주변을 절대 만져서 훼손시키면 안 된다고 거듭 주의를 준다. 발걸음이 그래서 더 조심스럽다. 원래 휴대전화나 카메라 지참도 금지돼 있다. 취재를 위해 특별히 허락을 받았지만, 후레쉬는 사용하면 안 된다. 동굴해설사가 얇은 물속에서 눈이 퇴화한 '아시아동굴옆새우' 한 마리를 보여준다. 눈이 없는지 있는지 잘 구분이 되지는 않았지만, 보통의 새우보다 투명한 느낌이 들었다. 어둠 속에 살아 보호색이 필요 없기에 투명하게 변한 것이라고 한다. 동굴 안은 변형 없이 천연 그대로의 모습이다. 방향 감지를 위해 설치한 로프가 전부다. 잠시 가다 보니 배를 깔고 낮은 포복을 해야 하는 이른바 '개구멍'이라는 곳이 나타났다. 사람 한 명이 간신히 통과할 수 있는 크기의 구멍이다. 역시 탐험형 동굴인 뉴질랜드 북섬의 와이토모 동굴을 탐험했던 기억이 났다.



- 1 백룡동굴의 종유석
- 2 종유석 단면
- 3 기묘묘한 동굴 내부

머리를 갓다 대니 바람이 휩 분다. 동굴 내부가 막혀 있다고 들었는데, 이 바람은 어디에서 어디로 향하는 것일까? 알 수 없는 일이었다. 최재훈 주무관에 따르면 동굴 내부에서도 기류가 있다고 한다. 바깥과 기온 차가 나기 때문에 기류가 형성된다는 것이다. 개구멍을 통과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낮은 포복으로 기어야 한다. 내가 기어서 통과해야 다른 사람이 통과한다. 바닥은 질퍽했고, 때로는 미끄러웠다.

10여분 더 걸어 들어가니 동굴의 비경이 원형 그대로 펼쳐진다. 다양한 석순과 대형 종유석이 모습을 드러낸다. 종유석이 커다란 고드름처럼 변한 '피아노 종유석'도 보였다. 백룡동굴엔 남근을 닮은 종유석도 많다고 들었는데 실제 남근석은 발견하지 못했다. 동굴 탐험 동안 최소 6~7번의 낮은 포복 자세를 취해야 했다. 자연히 평소 잘 쓰지 않던 근육을 마음껏 썼다. 때로는 게처럼 엎드린 채 좌우로 움직여 이동해야 했다. 카메라와 가방이 바닥에 끌렸다.



1 '개구멍'을 기어서 통과하는 모습  
2 탐방객들이 완전한 어둠 속에서 잠시 명상시간을 가진 뒤 다시 불을 켜고 이동하고 있다.

그러기를 50여분, 동굴 끝에 이르러 약간 넓은 공간이 펼쳐졌다. 완벽한 어둠을 체험해 보라는 해설사의 제안에 모두 헤드 랜턴의 불을 끄고 앉았다. 마지막으로 해설사가 가진 대형 불빛이 아주 서서히 어두워졌고 이내 완전히 암흑이 됐다. 밝은 빛이 서서히 사라지는 것이 아주 특이한 느낌을 줬다. 삶이 끝날 때 이런 기분일까 싶은 생각이 들었다. 빛의 소중함이 느껴지는 순간이다. 완벽한 어둠 속에서 동굴 어디에선가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만 들려왔다. 온전히 나 자신만으로 돌아온 시간이다.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가운데서, 마음의 평안을 잠시나마 느낄 수 있었다. 짧은 순간이었지만 큰 여운이 남았다.





### 어름치마을

헤드랜턴이 하나둘씩 켜지고, 짧은 어둠은 끝이 났다. 잠에서 깬 듯 일행은 다시 역순으로 낮은 포복을 수차례 거듭한 뒤 동굴 입구로 나갔다. 동굴에서 나오니 후텁지근한 바람이 훑 불어온다. 탐사복을 벗는데 다른 사람들은 속옷 차림이다. “왜 옷을 다 입고 탐사복을 입었어요?” 한명이 묻는다. 드라이 백을 챙기느라 설명을 제대로 듣지 않은 탓이다. 속옷에 탐사복을 바로 입었더라면 얼마나 기뻐했을까.

아쉬움을 뒤로 하고 문희마을을 떠났다. 문희마을 초입은 동강의 비경을 담은 어름치마을이다. 천연기념물 제259호인 어름치에서 이름을 따 왔다. 어름치는 하천 중상류의 물이 맑고 자갈이 깔린 곳에 사는 몸길이 15~40cm가량 되는 물고기로, 예전에 동강에서 자주 잡혔다. 2010년 문화체육관광부는 어름치 마을을 ‘생태 모델 마을’로 지정했다.

이 마을은 동강과 기화천의 합류 지점에 형성돼 천렵을 즐기기에 좋다. 동강과 만나기 직전의 계곡은 서늘한 냉기가 뿜어져 나온다. 물속으로 들어가 간단한 견지낚시 채비라도 드리운다면 더위와 물고기 2가지를 다 잡을 수 있다. 운이 좋으면 상류의 송어양식장에서 달아난 송어를 낚을 수도 있다. 물고기를 잡지 못했더라도 아쉬워하지 말자. 캠핑장 앞의 작은 연못에는 대형 송어가 살고 있다. 이곳에서 낚시체험을 할 수 있다. 대형 송어의 강렬한 손맛을 느낄 수 있다.

이밖에 이 마을에선 동강 자체를 온몸으로 느끼는 래프팅을 즐길 수 있다. 동강의 래프팅은 너무 유명해서 연간 수십만 명이 찾는다. 황새 여울은 물속 곳곳에 크고 작은 바위들이 자리 잡고 있어 스릴을 만끽하기 그만이다. ⑦

#### + INFORMATION

백룡동굴은 월요일을 제외한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된다. 입장료는 성인 1만5천원이다. 체험 가능 연령은 만 7세 이상 65세 미만이다. 어름치마을에서도 백룡동굴을 체험할 수 있다. 백룡동굴 탐사 + 동강래프팅 상품은 4만원인데 현재 3만5천원에 이용할 수 있다. 낚시 체험은 1만5천원이다.

- 1 어름치마을의 명물 래프팅
- 2 물안개 낀 어름치 마을에서의 낚시
- 3 어름치마을에서 맛보는 송어회
- 4 어름치마을의 상징 어름치 구조물

